

## ‘통일독일에서의 한국통일의 길을 묻다.’

: 행신중 수석교사 황보근영

### 통일 독일을 찾다.

- ▶ 2014.10.12~10.20 (9일)
- ▶ 독일, 통일역사 연관 도시 및 학교 방문과 포럼
- ▶ 교육부 주최-경기도교육청 주관
- ▶ 한국독일 교원 통일포럼 교류 사업(1회)
- ▶ 인원 : 45명(서울,경기 3명/이외시도 2명씩/교육부)



### 독일 통일역사 현장 탐방 일정

- 1일(10/12) 인천→프랑크푸르트→에어푸르트
- 2일(10/13) 에어푸르트→드레스덴
- 3일(10/14) 드레스덴→베를린
- 4일(10/15) 브라운슈바이크→포츠담→베를린
- 5일(10/16) 베를린(한독통일역사교육포럼)
- 6일(10/17) 베를린→라이프치히
- 7일(10/18) 뉘른베르크→밤베르크 → 뉘른베르크
- 8일(10/19) 뉘른베르크→프랑크푸르트
- 9일(10/20) 프랑크푸르트 → 인천

# 독일 통일역사 포럼 여정



## 독일 분단 (4개국 분할 점령)




## 베를린 장벽

		
<p>베를린장벽의 모습 : 장벽 너머로 옛 서베를린의 건물이 보인다.</p>	<p>&lt;형제의 키스&gt; : 브레즈네프 소련 서기장과 호네커 동독 서기장의 키스</p>	<p>1961년 철조망의 동서 베를린은 대신에 콘크리트 장벽으로 쌓이게 된다.</p>

### 1 연수 내용

베를린 장벽은 이번 한독 교원교류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하다. 1949년부터의 분단 상황이 어떠했으며 1990년 통일이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1945년 5월 8일 소련의 붉은 군대가 베를린을 점령하면서 히틀러는 권총으로 자살하고 나치 독일은 연합군과 소련군에 무조건 항복하였다. 소련군은 이미 수도 베를린을 점령하고 훨씬 더 서쪽으로 진격하던 차에 엘베강에서 미·영·불 연합군과 만나게 되었다. 이에 미·영·불·소는 독일 전체를 4분할 점령하고, 수도 베를린도 그 중요성과 특수성이라는 이유로 4분할 점령되었다. 이후 서방측이 통합하여 1949년 5월 23일에 독일연방공화국(BRD)이, 같은 해 10월 7일에 소련측이 독일민주공화국(DDR)이 들어서면서 독일은 동·서독으로 분단되었다. 동독 지역에 둘러 쌓인 서베를린은 ‘육지의 섬’으로 철조망으로 둘러 쌓였다. 동독, 동베를린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넘어가자 동독정권과 소련은 마침내 1961년 8월부터 높은 콘크리트 장벽을 쌓았다. 분단의 장벽은 1989년 11월 9일, 무너지게 된다. 그 아프고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 베를린’으로 남겨 두고 기억하고 있다. 우리 연수단은 6일째 아침 일정 시작으로 베를린 장벽의 현장과 체크포인트 찰리 그리고 브란텐부르크 문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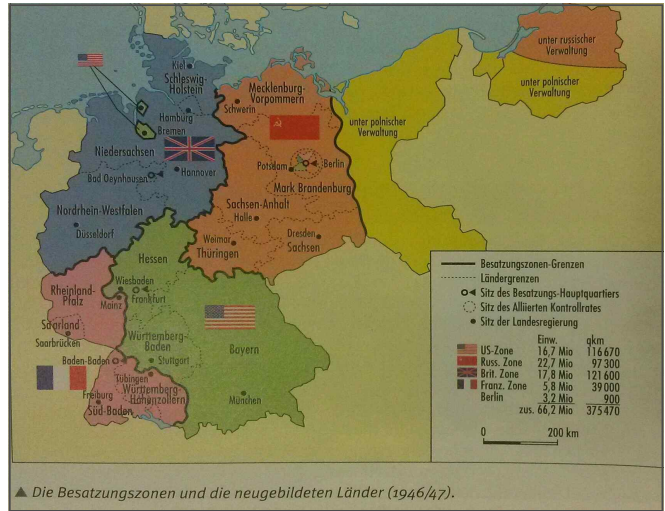
		
<p>이스트사이드 갤러리 이외에도 베를린 장벽의 흔적은 보존·기억되고 있다.</p>	<p>동서 베를린의 유일한 통행 검문소였던 ‘체크 포인트 찰리’도 보존·기억되고 있다.</p>	<p>베를린 장벽, ‘이스트사이드갤러리’에서 본 ‘체크포인트 찰리’의 벽화 앞에서</p>

### 2 통일교육 교수학습에 적용

가. 교수학습 적용상 시사점

독일의 분단 상황과 우리의 분단 상황 비교해본다. 독일의 분단은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묻고, 다시는 전쟁의 야욕을 갖지 못하게끔 전승 점령군인 미·영·불·소가 정치적으로

분단 시켜 버렸지만 우리의 분단은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다.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고 남하한 소련군이 먼저 한반도로 진주하면서 단순히 한반도에 남은 일본군들의 무장해제를 위해 제안된 38도선이 그만 공산주의 소련의 야심에 의해 지리적으로 분단되고 말았다. 이후 통일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48년 두 개의 정부가 남북한에 따로 수립되면서 정치적으로 분단되었으며, 1950년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으로 서로를 원수라 여기며 분단은 이념적으로 심화되고 말았다. 그러나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이다. 통일은 꼭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도 통일 이후의 분단 흔적과 상처는 보존되고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베를린 장벽과 같은 휴전선 철조망과 비무장지대 그리고 체크포인트 찰리와 같은 관문점은 또 하나의 역사와 교육의 장으로 보존되고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의 분할 점령과 동서 베를린 분단 : 독일교과서]

나. 교수학습 지도상 유의점

우리의 분단 역사를 가르치면서 단순히 우리 외부의 탓으로만 돌리면서 주변국가를 원망하는 교육을 시켜서는 안된다. 물론 일제의 침략이 첫째 원인이고 이후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미군과 소련군에게 그 책임이 있겠지만 전적으로 외부에서만 분단을 원인을 찾아서는 안될 것이다. 분단에 대한 여러 원인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균형된 관점에서 가르쳐야 할 것이다.

한국 통일 이후의 휴전선과 비무장지대 그리고 관문점을 역사적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상현실 교수법으로 토론과 스토리텔링 수업을 할 적에도 통일에 대한 감성과 의지의 간절함이 지나쳐서 맹목적 통일관으로 흘러가서는 안될 것이다.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두면서 통일 이후의 노력에 대해 토론하고 스토리텔링 할 수 있어야 한다.

[추가 사진] : 베를린의 참회와 통일의 영광



브란덴부르크 문 가까이에는 나치시대의 유대인 대량학살을 참회하는 2711개의 비석으로 된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이 있다.

브란덴부르크 문은 전쟁승리의 개선문으로 독일역사의 영광과 재통일의 상징적인 문이 되었다.

# 베를린 장벽의 역사

1961년 8월 13일, 동 베를린 지역에서 장벽을 쌓기 시작 - 서베를린 160Km를 콘크리트 장벽으로....



1961년 8월 15일, 베를린 장벽이 완성되기 직전, 동독병사가 프랑스 점령지역으로 탈출을 감행하는 모습



1989년 9월 25일, 라이프치히 월요평화시위 - 동독 시위 기록  
..... 1989년 11월 9일, 통행자유화 발표 베를린 장벽 붕괴

# 브란텐부르크 문

바로 옆,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미, 건축가 피터 아이젠만의 작품  
19,000제곱미터 2711블록 콘크리트

독일의 영광! 그 바로 옆에  
속죄의 상징을.....  
이것이 바로 Bedenken 정신인가?



0 x 190.5 mm

# 뫼들라로이트



이제는 통일된 독일의 평화로운 마을이 된 뫼들라로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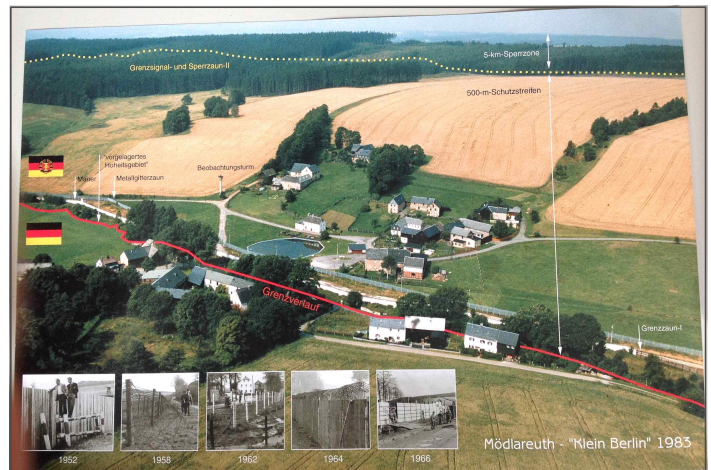
어이없다. 이 작은 개울이 분단의 원인이 되어 이웃과 가족을 갈라놓았다.



한 작은 마을을 갈라놓은 높이 3.4미터, 길이 700미터의 장벽. 서로 만나지도 보지도 못하게..

## 1 연수 내용

뫼들라로이트는 동서독 분단시대에 ‘리틀 베를린’이라는 별명을 가진 비극의 마을이었다. 이 마을 가운데에는 개울이 흐르고 있었으며 이 개울을 따라 1800년대부터 주(州) 경계가 나뉘어져 있었다. 그래도 이 마을의 주민들은 아무 상관없이 작은 개울을 건너 오가며 만나고 생활하였기에 아무 불편함이 없었다. 하지만 1949년 이 마을에 불행은 닥쳐왔다. 패전 독일이 이 작은 마을의 개울을 경계로 서독지역의 바이에른 주와 동독지역의 튀링겐 주로 분단되었다, 당시 주민 50명이 살던 이 작은 마을의 개울을 따라 철조망이 쳐졌으며, 급기야 높이 3.4m, 길이 700m의 장벽이 설치되어 이웃들과 친인척들은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 우리 연수단은 그 현장을 찾았으며,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영상을 보면서 분단된 우리의 현실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돌아보게 되었다. 더욱이 이웃의 분단과 이산가족의 고통은 아직도 한반도에서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당시 50명 정도가 한 가족처럼 살던 이 마을에 동서독 장벽이 가로 놓이게 되었다. [현장에서의 안내화보]



분단의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기 위해 당시의 철조망과 감시탑을 보존하고 있다.



당시 동독지역 마을에 처진 철조망 건너에 지금의 서독의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다.



장벽이 쳐진 1966년 당시 뫼들라로이트의 모습

## 가. 교수학습 적용상 시사점

전쟁의 결과는 평화로운 마을과 이웃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크나큰 고통을 안겨준다. 더욱이 정치적 이념의 차이로 마을과 가족을 갈라놓은 분단의 장벽은 인류애에 대한 큰 죄악이며 돌이킬 수 없는 상흔으로 남는다는 것을 역설해야 한다. 그래서 평화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야 한다.

독일의 한 작은 마을, ‘리틀 베를린’의 고통은 독일 통일로 끝이 났지만 한반도에는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전해준다. 크게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마을이며, 작게는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자유의 대성동 마을과 북한 지역의 지정 마을이다. 지금은 유엔군 사령부가 관리하는 비무장지대에 있는 두 마을 사이의 직선 거리는 1.8킬로미터이다. 경기도 지역과 강원도 지역의 학교에서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에 남달리 역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 여기에 있다.

## 나. 교수학습 지도상 유의점

마을의 철조망도 서로 볼 수도 없는 높은 장벽도 결코 마을 이웃의 갈망과 인심은 갈라놓을 수는 없다. 우리의 통일을 위해서는 가능한 분단의 부정적 현실보다는 통일의 희망적 내일에 대한 기대를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산 가족의 고통을 멈추게 하며, 또 다른 이산가족인 북한이탈주민과 그리고 인권이 박탈된 북한 지역에서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평화와 자유 그리고 행복의 가치를 전해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간절하게 희망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한다. 하지만 단순히 감성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다.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밝게 전해주는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를 제시하며, 통일은 곧 ‘나의 꿈’이며 ‘나의 희망’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통일은 단순한 역사(History) 곧 히스 스토리(his story,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통일은 마이 스토리(my story) 곧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전해져야 한다.



비무장지대 안의 대성동 마을

## 독일에서 얻은 말 : 'Bedenken(베덴켄)'



'숙고하다'. '누구를 위해 마음을 쓰다.'  
 지난 날의 과오를 깊이 되돌아보고,  
 현재와 미래를 성찰하는 자세



## 유대인들 :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말라.' (Forgive, not forget)



"망각은  
 포로생활로 이끈다.  
 이를 기억하는 것만이  
 구원의 비결이다."

'야드 바셈(Yad Vashem) museum'-예루살렘  
 '650만 명의 희생 유대인들의 이름을 기억하라.'

우리를 돌아보며.....

‘잊고 살면서,  
용서는 하지 않고...’  
(Forget, Not forgive)



훔볼트 대학에서 만난, 칼 마르크스

Die Philosophen haben die Welt  
nur verschieden interpretiert,  
es kommt aber darauf an,  
sie zu verändern.



"철학자들은 지금까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세계를 '해석'해 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혁'시키는 것이다.." -칼 마르크스